

 문화재청 <small>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mall>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 [2012. 4. 25.]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노명구(romgu@ocp.go.kr) 박지영(delphoi@ocp.go.kr)	F A X	042-481-493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동시게재				

‘조선태조어진’을 국보로,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扶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 등 3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은 1872년(고종 9)에 제작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다. 당대 최고의 화사들이 동원되어 원본에 충실하게 이모 작업이 이루어져 조선 초기 선묘 위주의 초상화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의 화면, 표제(標題)와 장황(粧纒), 용문이 직조된 풍대(風帶), 낙영(絡纓)과 유소(流蘇) 등이 온전하게 구비된 상태로 진전(眞殿·선원전의 다른 이름) 봉안용으로서의 격식을 잘 갖추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어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조선 시대 왕의 전신상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더불어 이 어진과 관련된 ‘경기전의’(慶基殿儀), ‘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模都監儀軌)’ 등의 자료를 통해 어진 제작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은 예술적·학술적 가치는 물론 상징적인 가치도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扶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는 부여 왕흥사지의 목탑지 심초석 남쪽 중앙 끝단에 마련된 장방형 사리공 내에서 발견됐으며, 가장 바깥에 청동제의 원통형 사리합을 두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사리호, 그리고 보다 작은 금제 사리병을 중첩하여 안치한 3중의 봉안 방식을 취하였다.

청동제 사리합 외면에는 “정유년(丁酉年, 577년) 2월 15일에 백제왕 창(百濟王 昌)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찰(刹)을 세우는데, 2대였던 사리가 장시(葬時)에 신의 조화로 3대가 되었다.”는 6행 29자의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은 사찰의 건립시기, 사리장엄구의 제작 시기와 사찰의 건립 배경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사리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리장엄구로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권말에 수록된 최이(崔怡·?~1249)의 지문(識文)을 통해서 이 판본의 제작 동기와 1239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최이에 의하여 주자본(鑄字本)을 번각(翻刻)하여 간행한 목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판본의 판각시기인 1239년보다 앞선 시기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 전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문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금속활자인쇄술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더불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白磁 靑畫 興寧府大夫人 墓誌 및 石函)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일대의 파평윤씨 정정공파(貞靖公派) 묘역에서 백자 지석(誌石) 6장이 석함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6장의 백자 지석 중, 맨 앞과 뒤의 지석은 순백자이며, 가운데 4장은 청화(靑畫)로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세조의 장모이자, 정희황후의 어머니)의 장례 경위와 생전의 덕행, 가계와 후손들의 현황 등을 적고 있다. 이 4장의 뒷면에는 순서를 1장(一張)~4장(四張)이라고 청화로 적어두었다.

이 묘지가 제작된 경태(景泰) 7년은 1456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백자 청화의 제작시기 중 가장 이른 예로, 백자 청화의 개시 시기와 편년에 획기적인 자료이다. 더불어 후대에 제작된 백자 묘지들과는 규격이나 번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커다란 석함에 공간을 마련하여 매납한 형식도 특이하다. 백자 지식의 초기 제작 양상과 매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 '조선태조어진'을 포함한 4건의 유물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 붙임 1. 국보 및 보물 지정 예고 목록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국보 및 보물 지정 예고 목록

종 별	문화재명	수 량	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비 고
국 보	조선태조어진	1폭	전라북도 전주시	국유 (어진 박물관)	보물 제931호 (1987. 12. 26 지정)
보 물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3점	충청남도 부여군	국유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	현 재 비지정
보 물	남명천화상송증도가	1책(44장)	경상남도 양산시	김찬호 (공인박 물관)	현 재 비지정
보 물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7점 (묘지 6점, 석함1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윤수창 (고려대 학교 박물관)	현 재 비지정

사 진 자 료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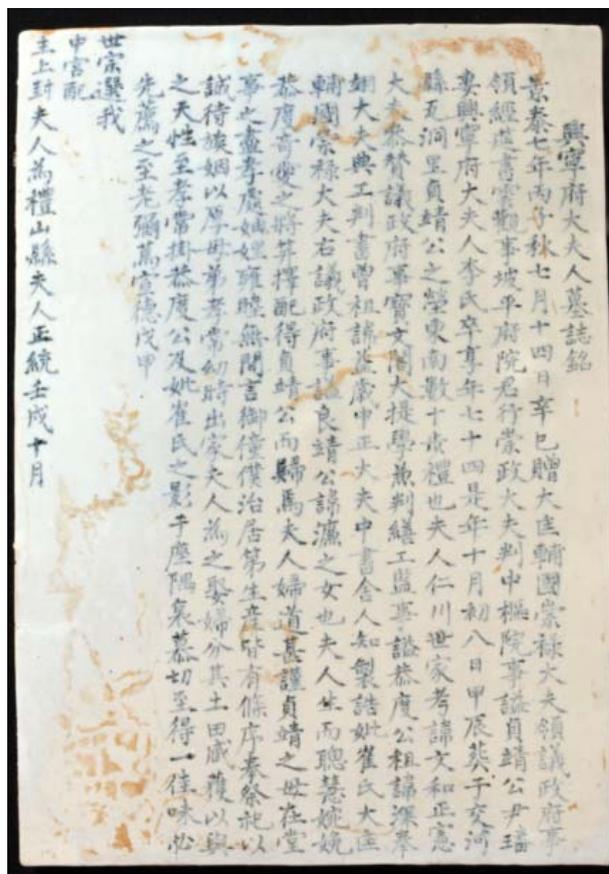


徒之暇於其歌句向之間分為之頌太
 抵隨色而言空即定而言慧不見一相
 而充滿法界不離一塵而圓具佛性其
 詞灑落其旨宏遠昭昭然發永嘉之心
 於數百年曠絕之後子竊幸叩師之緒
 餘而因以開明故覽師之頌慕其清風
 而不能自己命之鏤板用廣其傳庶使
 尋者通冥者明而一超頓以悟乃師之

賜也熙寧九年七月十日括蒼祝 况
 後序

天南開豁道歌者實禪門之樞要也故後學予
 恭禪之流莫不由斯而入升堂觀典矣然則
 其可閤塞而不傳通乎於是募工重彫
 字本以壽其傳焉時已亥八月上旬中書公
 晉陽公崔 怡 謹誌

‘남명친화상송증도가’



興寧府大人墓誌銘

景泰七年丙子秋七月十四日辛巳贈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
 領經筵書雲觀事坡平府院君行榮政大夫判中樞院事諡貞靖公尹瑄
 妻興寧府夫人李氏卒享年七十四是年十月初八日甲辰葬于交河
 縣瓦洞里負靖公之營東南數十畝禮也夫人仁川世家考諱文和正憲
 大夫恭贊議政府事實文閣大提學兼判繕工監諡恭度公祖諱深奉
 知大夫典工判書曾祖諱益慶中正大夫中書舍人知製誥妣崔氏大匡
 輔國崇祿大夫右議政府事諡良靖公諱瀛之女也夫人生而聰慧婉婉
 恭度奇愛之將笄擇配得貞靖公而歸焉夫人婦道甚謹貞靖之母在堂
 事之盡孝處姑妯娌睦睦無間言御僮僕治居第生彥皆有條序奉祭祀以
 誠待嫁姻以厚母弟孝常幼時出家夫人為之娶婦分其土田感獲以與
 之天性至孝常掛恭度公及妣崔氏之影于座隅哀慕切至得一佳味必
 先薦之至老彌篤宣德戊申

世宗選我
 中宮配
 王上封夫人為禮山縣夫人正統壬戌十月

‘백자 청화 홍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의 백자 묘지